

보도시점 (전매체) 배포즉시

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보안 강화를 통한
신뢰 회복 후 2기 모집을 시작할 예정입니다.

1. 보도 개요

아시아경제는 「중기부 수장 공백으로 ‘모두의창업’ 2차 모집 미뤄질 듯」 제하의 기사에서 △중기부 수장 공백으로 모두의 창업 2기 모집시점이 더 늦춰진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.

2.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

- 모두의 창업 2기 모집 일정 조정은 플랫폼 ‘보안점검 및 안전성 확보’를 위한 조치입니다.
-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외부 전문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이번 모두의 창업 정보유출 상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,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안 조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.
- 또한, 도전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마련한 아이디어 보호 방안도 신속히 이행하고 있습니다.
-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도록 플랫폼 보안 강화를 통한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으며, 보안 강화 조치 이후 모두의 창업 2기 모집을 시작할 예정입니다.

담당 부서	창업벤처혁신실 청년정책과	책임자	과 장	강현정 (044-204-7950)
		담당자	사무관	류지혜 (044-204-7953)